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어학원

| 기본 1단계 18기 |

**'영어가 너무나 어렵다' 에서 '이렇게 쉬운 것이었구나' 라는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 명인 아빠 -

▶ 정말 획기적으로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훈련 수료자들의 끊임없는 입소문과 추천이 입증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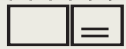
▶ 서울에서 매일 춘천까지 와서 훈련받는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 현직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초 중 고등학생 자기 자녀에게, 동료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적극 추천하는 곳이다.

▶ 이 방법은 영어가 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거의 100% 등록 했습니다!

▶ 중 고생과 초등학생들에게도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입식이나 암기식’또는 ‘단순한 이해’가 아닌,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미라클식 방법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할 때 균형잡힌 언어(문법, 독해, 회화, 영작까지)로서 영어가 완벽히 소화 되며 습득됩니다.



NEWS

국민일보 2008년 12월 16일 뉴스(사회면)에서

“조선땅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된 것은 1883년 동문학이라는 통역학교. 당시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우면 6개월이면 웬만큼 통역이 가능했다. 4개월의 집중훈련으로 입에서 영어가 술~술~ 나오게 만드는 명강사가 춘천에서 요즘 인기다. 최 목사는 토종 영어 교수법 전문가다. ... 춘천 화천 홍천 원주는 물론 서울과 수도권, 심지어 부산에서도 올라왔다. ... 4개월 훈련을 마친 졸업생들은 “중고교 때 진작 이런 식으로 배웠더라면 영어 고민이 없었을 것”이라는 감탄과 고마움의 글을 남겼다. 미국 대학 경영학 교수로 있다 은퇴했다는 김모(68)씨는 “비영어권에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고민해왔는데 이곳에 해답이 있었다”며 최 목사의 교수법에 놀라워했다.”

훈련생 체험수기 중에서

● 이곳처럼 영어에 대해 확실하고 명확한 답을 내놓은 곳은 없었 ... 게다가 목사님의 강의는 언제나 재미있고 쏙 빠져 들게 만드는...

미라클을 다니기 바로 전까지 나는 유치원때 영어연극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9년간 이름있는 학원들을 다녀보았지만, 이곳처럼 영어에 대해 확실하고 명확한 답을 내놓은 곳은 없었던 것 같다. 이전의 학원들은 비록 영어에 친해지는데 도움은 될지언정 영어의 진짜 윤곽선은 손도 대지 못했고, 어휘력을 높여줄지언정 그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의미 등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영어문장을 스스로 자유롭게 영작해서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문장을 겨우 암기하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배웠다. 하지만 미라클에선 영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고, 더 이상 영어와 나 사이에 존재하던 벽은 사라졌으며, 자신감도 생기게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날들 학원을 다니면서 뭔가 풀려지지 않았던 그 무엇 어느 문장도 잘 해석되지 않고 직감으로 때려 맞추기식 이었던 나에게 그 무엇을 통쾌하게 풀어주었다. 그때는 영어문법과 문장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무작정 외우며 공부하였지만,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유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외우지 않고도 풀지 못해 끔찍거리던 수학문제가 풀어지듯이 통쾌하게 배울 수 있었다. 게다가 목사님의 강의는 언제나 재미있고 쏙 빠져들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 더욱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고,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해 주시던 교훈의 말씀들과 동기부여가 영어공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와 내 생활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전까지 나에게 영어란 뭔가 납득할 수 없었던 심오한(?) 학문이고 건드리기 싫었던 것 이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주무르고 새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장난감이 된 듯한 느낌이다.

- 권여림 (남여중 1학년) -

● 그 흔한 영어학습지 하나도 접해 본적이 없는 아이 ... 이걸 정말 기적이다.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돼! 나 안해!!” 한참 놀기를 좋아하는 5학년 아들이 화를 내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아이가 이렇게 싫어하는 데 효과가 있을 지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하루 하루 불평 한마디 없이 즐겁게 4개월을 마쳤다. 중 고 대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타지방에서 올라온 전직 고교영어교사와 똑같이 훈련을 한 것이다. 세진이 또래 다수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이걸 정말 기적이다. 왜냐하면 특히 세진이는 학원은 물론 그 흔한 영어 학습지 하나도 접해 본적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이랬던 아이가 독해는 물론 문법 회화까지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사용할 정도로 미라클영어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주 재밌게 익히고 영어재미에 푹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와 이제 영어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방법' 을 습득시켜 주신 원장님께 저희 부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이세진 (교대 부설초 5년) 부모 -

● 4개월만에, 영어성경을 보고 있고 외국인 학생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회화실력

여러 차례에 걸친 인터넷 수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설마 짧은 기간에 이렇게 효과가 있겠어?' 무시하다가 2008년 말경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에 관하여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참석하여 4개월간의 학습을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단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영어성경을 보고 있고, 영어예배에 참석하여 미숙하지만 외국인 학생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회화 실력이 향상되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배웠던 문법 및 독해를 30년이 지나 5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4개월간의 미라클 훈련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외국인과 대화(영어회화)하는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 송제성(50대/ 순복음춘천교회 안수집사) -

1. 개 강 일 시 2011년 5월 16일(월) 오후 6시 30분(시간엄수)
2. 기 간 5월 16일(월) ~ 6월 13일(월) (매주월,화,목,금 6:40~10:10P.M. specially training)1일 3시간 30분씩 1개월 학습 및 훈련
3. 장 소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어학원' (교통편 : 카풀, 22번버스)
4. 본 어 학 원 은
 - ① 초5, 6년, 중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등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 ② 아무리 영어회화를 공부해도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이 헛갈려서 정리가 되지 않고, 더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 포기하신 분.
 - ③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 ④ 출국이 임박한 분, 해외어학연수, 유학가기 전에 미리 반드시 거쳐야 할 곳.
 - ⑤ 방학 때는 경험자들의 입소문을 듣고 타 지역(서울, 부산, 성남, 대전, 수원, 원주, 양양, 평택 등)에서도 춘천에 원정 와서 훈련 받는 곳.
 - ⑥ 영어의 근본 핵심을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실력 전반(리스닝,스피킹,발음,문법,빠르고 정확한 독해,영작)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 매우 좋습니다.
5. 훈련등록마감 5월 2일(월)까지 선착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하세요. ☎ 264-0691, 010-3510-0691
6. 공개 설명회 및 체험사례발표 1차 (4월 16일(토)) / 2차 (4월 23일(토)) / 3차 (4월 30일(토)) (1,2차 설명회시 등록정원이 되면 3차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 ~ 6시 30분. ※시간엄수(5시까지) 요망.
7. 훈련생 자격 반드시 3차의 공개설명회 중 1회를 참석한 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분들에게는 장학혜택이 있습니다. -

본 훈련원 훈련 과정
(기초부터 완성까지)

기본 1단계 : 1개월훈련으로 영어와 회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근본적으로 완성하므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단계.

기 본 2 단 계 → 프 리 토 킹 1 단 계 → 프 리 토 킹 2 단 계

인터넷 다음카페(<http://cafe.daum.net/dmlt>)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최근 “미라클 체험수기” 가 더 많이 있습니다.

초,중고생을 위한
2개월 특별훈련
미라클 영어 특별훈련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다음 카페'를 방문해 주세요.

미라클 체험수기

➡ 이렇게 단기간에 문법을 전체적으로 끝내고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곳은 이곳 외에는 없을 것 같다.

숙명여대에서 테솔과정과 해외어학 연수 등 상당히 오랫동안 영어공부에 파묻혀 살았고 나 역시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미라클은 기존의 영어교육 system 과는 근본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영어의 문법이나 표현을 익히는데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 근본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문법을 전체적으로 한 눈에 정리할 수 있었다. 영어공부를 하는 데 3개월은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닌데 이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양을 소화하게 될 줄은 몰랐다.

원어민도 못 가르쳐줄 섬세한 언어만의 뉘앙스와 문화를 콕콕 짚어주시며 차이점을 알려 주실 때 여기에서 훈련받는 보람을 더욱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근본적인 영어기술로 이렇게 많은 양(문법, 독해, 회화)을 단기간에 끝내고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다.

- 박윤주(테솔교사, 숙명여대 테솔과정, 해외어학연수) -

➡ 영어의 생기초부터 이전에는 배워본 적도 없는 고급문법까지 어떻게 이렇게 쉽고 저절로 기억이 되게 가르쳐 주시는지!

한마디로 이곳은 정말 ‘기적(미라클)’이다. 2달만에 영어의 생기초부터 시작해서 이전에는 배워본 적도 없는 고급문법까지 어떻게 이렇게 쉽고 저절로 기억이 되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지! 또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아무리 외우고 매달 마다 레벨 테스트를 보아도 쉽게 잊어버리곤 하던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문법들까지도 독해는 물론이고 심지어 응용해서 영작, 회화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 주시는지! 그래서 학교시험을 위해서 억지로 문장을 암기하지 않아도 독해가 너무나 쉽게 될 정도로.

그러면서도 언제 3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흥미있게 수업이 진행 되는지!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직접 수업에 참여해 봐야만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친다는 학원들에 수년간 다녔었기 때문에 더욱 이곳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학원들과는 차이가 다른 수업이었다.

영어 처음 배우는 초등생 동생과 엄마가 먼저 다니시고 이곳을 강력히 추천해 주셨는데, 엄마에게 정말 많이 감사한다.

- 이재욱 (남중 2년) -

➡ 와우!! 세상에~~ 외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되다니.. 말 그대로 미라클(기적)입니다.

중, 고등학교때부터 대학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는데도... 영어는 여전히 정복할 수 없는 커다란 산이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했는데도 외국에 나가서는 아주 짧은 간단한 대화 정도의 수준이라니... 주말이면 놀러가는 룸메이트를 부러워하면서 딸리는 영어로 밤 세위 레포트 작성 하던 일이 떠오르네요. 외국에서 몇 년을 영어라는 것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이가 없을 정도이지요.

미라클 영어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지금 돌이켜 보니 너무나 아쉽네요. 영어에 한이 맺히다 시피 한 저로서는 내 아이가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미라클 공개설명회’에 아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미라클훈련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큰 노력없이 그저 참석해서 따라하기만 했는데도 영어가 이렇게 쉽게 되다니... 시간이 갈수록 영어가 정말 쉽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영어공부 방법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미라클 영어는 많은 영어교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최고의 영어교육 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동안(3개월 쯤 훈련중)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훈련 3달째 들어설때 어느 날인가... 미라클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너무 싱거워” “영어가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영어가 쉽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완전대박이야!” 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만 2개월 만에 이진진짜 기적이지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아이는 영어를 너무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영어교육을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미라클 공개설명회’를 참석한 후에 처음으로 영어를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뭇 돌이 기뻐했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나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딸아이와 함께 저에게도 십여년이상 짓눌린 영어의 커다란 산을 서서히 정복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라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미라클은 되게 합니다. 살아있는 언어로서 독해, 회화, 문법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 오한나(봄내초교 5년) 엄마 -

➡ 영어가 2번만 읽으면, 마치 열심히 달달달 외운 듯 저절로 나온다. 아무리 애써도 나오지 않던 ‘영어라는 똥이 초강력 변비약’을 먹고 똥리는 것 같다.

이곳은 이상하다. 줄면서 들었는데도 3달 정도 되니까 머릿속에 영어 문치가 하나 생긴 느낌이다. 줄면서 들은 것들이 다 생각이 나서 그 동안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전에 나는 원어민하고도 영어를 해 봤고 엄청 외워도 봤는데 잘 안 되었지만, 미라클은 진짜 신기하게 목사님이 시키는대로 영어 2번만 읽으면 마치 열심히 달달달 외운 듯 저절로 나온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영어로 말도 하게 된다.

그래서 미라클을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무리 애써도 나오지 않던 영어라는 똥이 미라클이라는 초강력 변비약을 먹고 똥리는 것’ 같다. 목사님이 가끔 초강력 울트라 에베레스트급 썰렁개그를 해 주셔서 줄음을 깨 주시기도 한다.

- 김성훈(우석초 6년) -

➡ 영어의 눈이 새롭게 열려... 기존 영어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

“저는 ‘4개월만 하면 영어가 술술 나오네’라며 말씀하시는 아빠의 권유로 미라클 영어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어가 술술 ~~!’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10년 이상 영어공부를 해도 이 수준인데 4개월 만에 가능할까’ 의심이 생겼지만 결국 공개설명회를 참석하고 체험자들의 체험담과 영어방법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겨우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한 지 며칠이 지나자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니, 2개월 만에 ‘아 미라클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높고 큰 탑을 완성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벽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탑을 쌓는 쉽고 빠른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므로 얼마든 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응용하여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벽돌들을 체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무작위의 벽돌들만 주고 ‘탑은 본인이 알아서 쌓는 것입니다’ 하고 마는 기존 영어교육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어학연수를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어학연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국내에서 영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오전에 일주일에 두번 일대일 영어과외를 받았고, 저녁에는 미라클 영어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교가 되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호주에서 7년 계셨던 분이라 영어실력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게 회화 문장 전체와 뜻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문장을 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문장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몰랐으므로 응용시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어의 근본적인 원리를 선명히 쉽게 설명하면서 문장을 이끌어 내시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문장을 힘들게 외울 필요가 없이 스스로 얼마든지 응용하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집중하여 듣기만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저절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실제로 상당수의 5, 6학년, 중, 고생들도 함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더 비싼 돈을 내며 영어과외를 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효과가 있는 미라클 훈련을 전적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홍보지를 보며 설마 설마 하던 것이 정말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며 구체적으로 외국인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돌아서 가족끼리 사용도 해 보았습니다. 원래 알던 외국인이 있는데 미라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내게 ‘내가 전보다 훨씬 더 너의 말을 잘 이해 할 수 있다. 영어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쉽게 영어의 탑을 쌓아 올려 주시는데 탑의 기초인 머릿돌을 처음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참석만 하면 4개월 후에 영어라는 견고한탑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Miracle(기적)입니다.”

- 고우리(강대 영어영문과 1년 휴학중) -

➡ 모의고사 외국어영역이 100등 근처에도 못 갔었는데 지금은 전교 4등까지... 요즘은 ‘로또’ 맞은 기분이다.

처음 미라클에 왔을 땐 너무 쉬운 것을 배우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는데, 기초를 근본적으로 너무 잘 잡아주고 ‘영어는 쉽다’라는 자신감을 느끼도록 가르쳐 주셨다. 놀라운 것은 처음 시작한지 1주일만에 모의고사 점수가 10점이나 올랐다. 우연이겠지 싶었는데 그 후로도 점점 오르더니 지금은 20점 정도가 더 올랐다.

정말 잘 가르쳐 주신다. 문법도 따로 복습을 안 해도 잊어먹지 않도록 그리고 독해나 회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고, 강의 도중에 농담도 많이 하셔서 즐겁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 사실 나는 원래 영어라하면 질책이었는데 지금은 모의고사 중에서 등급이 가장 잘 나오는 영역이 외국어(영어)영역이다. 모의고사 외국어영역이 원래는 100등 근처에도 못 갔었는데 미라클 4개월 완성 코스 중 2달 반째 수강 중인데 전교 4등까지 나왔다.

짧은 기간에 필요한 것을 핵심을 잡아서 정확하고 생동감있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덕분에 요즘은 ‘로또 맞은 기분’이다. 야자야간 자율학습을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적향상에 학교 선생님들도 딱히 뭐라 안하시고 봐주실 정도다. 이제는 영어가 재밌다.

- 임영채(유봉여고 2년) -

➡ 2단계 까지만 하고 개인 사정상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학원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제 대학 때부터니까 꽤 오랜 시간 영어의 늪에 빠져 있었네요. 공개설명회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마 설마 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훈련생을 데리고 어떻게 강의를 하시려나’ 하지만 훈련을 하는 날이 하루하루 지나고 영어 교재가 한장 한장 넘어갈 때 마다 선택에 감사드렸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른 훈련생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이 들리겠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 어렵던 문법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배운 문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며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더라고요. 놀랍지만 정말입니다. 간단한 예문도 몇 번을 반복해야 외우던 저의 수준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미라클 훈련은 정말 미라클(기적)입니다. 긴 문장도 만만해 보이고, 반복해서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좋아진 내 말음에 제가 기록해지고, 일상생활 속의 일을 영어로 말해보는 습관이 생기고...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영어는 어려운 학문이 아닌 언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2단계까지만 하고 개인 사정상 미국에 갔는데 너무 아쉬워서 지금 미국에서 오디오강의를 듣고 있어요.”

- ‘기본훈련 단계’까지 수료생이 미국에서 -

인터넷 다음카페(<http://cafe.daum.net/dmlt>)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최근 “미라클 체험수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